

돼지·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 윤곽 나왔다.

- 21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기관, 대학, 생산자, 동물보호단체 참여
- 일반 축산농장 대상 지침안(가이드라인) 검토 및 의견 수렴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11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해 동물복지 지침안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생산자단체: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이 완성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일반 축산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한·육우 및 젖소(2026년), 오리·염소(2027년)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축종까지 지침을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오늘의 동물복지 지침 논의는 축산분야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첫발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물복지 지침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육 시설과 가축 관리 연구를 수행해 동물복지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 농장동물복지 연구회 학술토론회 행사 개요
2. 축종별 가이드라인 참고 자료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책임자	과 장	황성수 (063-238-7050)
		담당자	연구사	임세진 (063-238-7063)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주관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심포지엄」 개최 계획

< 목 적 >

- 세계 동물복지 동향에 부합하는 동물복지 인증기준 개선 및 보완
- 동물복지 관련한 국내외 이슈 대응 및 축산의 발전방안 모색
- 관련 전문가들 간의 소통을 통한 동물복지 연구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일 시 : 2024.11.21.(목), 15:00~17:00(예정)
- 장 소 : 축산과학원 5층 강당(전북 완주 이서 콩쥐팍쥐로 1500)
- 대 상 : 유관기관 담당자(농식품부, 검역본부), 대학,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 관련 전문가 등
- 주요안건 : 동물복지 가이드라인(돼지, 산란계) 검토

□ 세부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개회	14:00~14:15('15)	▪ 개회 ▪ 환영사	사회자 임기순 원장
발표 및 토론	14:15~14:40('25)	▪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설명	김찬호 연구사
	14:40~15:55('70)	▪ 전문가 의견 및 토론	황성수 팀장
폐회	15:55~16:00('5)	▪ 폐회	사회자

* 사회자 :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연구관

「일반 축산농가 대상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설정

- ◆ 일반 축산농가 대상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돼지, 산란계) 설정
* 2024.11.21.(목)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심포지엄」 개최

□ 개요

- 일반 축산농가 대상 동물복지 사육에 대한 방향성 요구^{농식품부}
 - 가금, 돼지, 소 등 8개 축종으로 동물복지 인증 확대 추진
 - * 산란계('12) → 돼지('13) → 육계('14) → 한·육우, 젖소 및 염소('15) → 오리('17)
 - 일반 축산농가 대상 가축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기준 강화
 - * 산란계: 0.05→0.075㎡/수('18 신규, '25 기준), 육계: 33~39→33kg/㎡('19)
 - * 돼지: 임신돈 1.4→2.25㎡/두, 수정 후 6주까지 감금틀 허용('20 신규, '30 기준)

□ 주요 내용

-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작성을 위한 농식품부와 협의
 - 일반 축산농가 대상 동물복지 관련 정보제공 위주의 내용
- 동물복지 가이드라인(돼지, 산란계)의 주요 내용
 - **(돼지)** 사육시설(사료, 음수, 질병, 조명, 온·습도, 사육밀도 등), 가축관리(꼬리자르기, 거세, 견치절치 등)
 - **(산란계)** 사육시설(사료, 음수, 질병, 조명, 온·습도, 사육밀도 등), 가축관리(깃털조기, 부리자르기, 강제환우 등)
 - * 구성 및 규제 유무: 인증기준(13개, 규제 있음), 가이드라인(8개, 규제 없음)

□ 향후계획

- 돼지, 산란계 외 타축종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시
 -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한 축종별 세부내용 작성 및 단계적 추진
 - * 추진계획: 산란계·돼지('25) → 한·육우 및 젖소('26) → 오리·염소('27)